# ‘산삼 캐낸 곳은 땅 기운 소진’…묘도 안써

##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28〉

■ 地氣 생성과 소진

땅기운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신명과 땅의 운세, 그리고 환경인자의 변화에 따라 생왕병사(生旺病死)가 결정되고, 그것이 생성과 소멸의 순환질서로 기능하게 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 이래로 만고의 진리이다. 해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비가 땅속으로 모여 지하수가 만들어지면, 이를 달의 기운이 지하수맥을 만들어 용맥을 따라 핏줄처럼 흐르게 한다.

별의 기운은 명당, 즉 태극훈(太極暈)의 지표면까지 감싸고 흐르는 소위 하수수(蝦鬚水)나 해안수같은 취면수(聚面水)를 만들어 응결된 땅의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용맥따라 이동하는 지하수가 암반을 만나 물길이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한 줄기는 시계방향으로, 다른 한 줄기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산태극, 수태극의 혈궁을 이루는 가운데 강력한 볼텍스(Vortex·氣)가 만들어지게 된다.

### 지하수맥 땅기운 누출 막아줘

이때 기(氣)가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얇은 수막(水幕)이 혈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달걀의 노른자를 흰자가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이런 지점을 일컬어 소위 ‘명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명당을 이루는 곳이 바람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취면수를 마르게 하여 지기(地氣)가 누설되고, 바람이 없으면 너무 습하여 혈궁에 물이 들어가게 되므로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소위 장풍(藏風)이라 한다.

이렇게 생성된 땅기운은 다시 신령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에너지로 기능하게 된다. 사람은 물론이고 신령한 약제와 곡식, 그리고 나무(神木)와 짐승(神獸)에 이르기까지 지기를 받고 자라는 것도 다 그런 연유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땅기운을 소진(消盡)시키는 주요 섹션이며, 특정한 지기를 받고 태어난 이들 역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기를 생성하고 순환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기(地氣) 소진이 가장 크다는 ‘천산수워양’

지기를 먹고 크는 ‘산삼’

삼국시대 이전에 화순의 모후산에서 산삼이 최초로 발견되어 그 영험한 효능을 알게 된 뒤부터 그 씨앗을 채집하여 사람의 손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인삼이다. 이 인삼도 지기를 소진 시키는 까닭에 상당 기간동안 후작(後作)으로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세계 4대 영약으로 널리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수미산(카일라스) 홍경천(紅景天)’ ‘천산수워양’ ‘모후산(母后山) 산삼(山蔘)’등의 지기 소진은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 오늘날의 산삼은 모후산 산삼을 어머니로 하는 천종산삼을 말하는데, 이 역시 장풍득수가 잘되는 팔부능선의 동북계곡에 뿌리를 내리고 30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분근(分根)하여 제2 몸통으로 알려진 자식을 두게 된다. 이렇게 옮겨 다니기를 반복하면서 90여년의 세월이 흘러 많은 자식과 손자들을 얻게 되면 무리를 이끄는 대장삼(大將蔘)이 되어 지기가 다한 곳을 버리고 새로운 기운과 지령(地靈)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된다. 이를 사람들은 흔히 ‘동자삼’이나 ‘산신삼’으로 부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산삼을 캤다고 소문이 난 산이나, 인삼을 키웠던 밭에는 땅기운이 소진된 것으로 보아 장사(葬事)를 지내지 않았으니 선조들의 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도 ‘쇄양’이 발견된 근처에는 장사를 지내지 않는 풍습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오고 있는 지역이 있다. ‘천산수워양’은 본래 영하 20~30도에서만 싹을 피우고 성장을 하지만, 온도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곧바로 휴면(休眠)에 들어가 버리는 ‘불로초(不老草)’로 알려진 영약으로 눈 속에서 300년을 산다고 한다.

### 명당엔 적당한 바람 불어야

이 ‘천산수워양’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 고비사막에 뿌리를 내린 것이 오늘날의 ‘돈황쇄양’ ‘육종용’ 또는 ‘사막인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 것들인데, 이 역시 지기(地氣)를 쇠진시키는 힘이 너무 커서 그 지역의 사막화(沙漠化)가 더 확산된다는 속설도 있다.

이런 신약과 신수(神獸), 신목(神木)보다 더 크게 지기를 소진시키는 것이 명당의 혈궁을 차지하고 있는 분묘(墳墓)이다.

마을의 주산(主山)이나 태상맥(胎上脈)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으로 감시하는 풍습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땅기운이 분묘로 소진돼 가뭄과 역병으로 마을이 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의 소산이기도 하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전남대와 용지

## “용 승천할 물 필요하다” ‘風水’따라 1969년 조성

전남도청과 더불어 광주가 발전하는데 일조를 한 전남대학교가 오늘날 용봉동에 자리한 것은 농대 때문이다. 1938년 임동에 있던 광주공립농림학교(1909년 개교)가 10만 평의 땅을 매입, 이전했다. 너릿재 아래와 광주사범 근처 후보지를 접은 것은 바로 농대가 미리 터 잡이를 했던 덕이다.

1952년 국립전남대학교는 초대총장 최상채를 비롯 92명 교수와 학생 720명으로 출발했다. 추가로 20만평을 사들여 대표 주소지를 300번지로 정했다. 이 지번은 용주마을 290번지 김병석의 논 888평이었고, 마스다(松田)를 거쳐 광복 뒤 불로동 11번지에 주소를 둔 최총장 소유가 되었다.

전대종합캠퍼스 30만평에 대한 내력을 1910년대로 되돌아가 보았다. 논 167필지 700두락을 비롯하여 밭 161필지 450두락, 임야 62필지 6만평, 묘지 18필지 1만평, 대지 24필지 3천평 정도로 분류되었다. 산 46번지는 1만평 크기로 정씨 소유였고, 사대부고 운동장 쪽 한 필지가 35마지기나 되는 논도 있었다.

전남대 캠퍼스 안에 있는 용지.

사회대 남쪽 둔덕 밑에는 20가구 남짓 용주마을이 1970년대 중반까지 있었다. 옛날 큰 포구라는 의미로 왕개(王浦)라는 지명이 전한다. 지산동 붉은 뱀과 구동 거북이가 태봉산을 여의주 삼아 놀고 있다는 뜻에서 용주(龍珠)라는 이름도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청을 지은다고 경양방죽을 메울 무렵인 1969년 228번지 일대에 용지(龍池)가 조성되었다. 용이 승천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는 유기춘 총장의 말과 함께 군장비의 지원으로 20마지기 크기의 새 방죽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서관 앞 광장의 봉지(鳳池)와 함께 용봉 명당에서 큰 인물을 배출한다는 의지가 담긴 풍수지리 조경이라 할 수 있다.

40여년 전 전대신문을 펼쳐본다. 용봉동은 삼각산의 지맥이 흘러내려와 임금왕(王)자를 써 놓았다. 그 형세가 용의 피로 쓴 왕자와 같고, 그 앞에 태봉산을 비롯한 세 개의 구슬이 흐르고 있어 용반희주(龍盤戲珠)형국으로 길지다. 용과 봉의 정기는 전남대가 모조리 차지해버릴 것은 뻔한 일이다(1962년 5월 19일).

최근 전남대는 여수대를 합쳐 규모면에서 서울·경북대와 함께 3대 대학이 되었다. 2천여 교직원이 학생 3만여 명을 길러내는데 쓰이는 돈만 해도 한 해 2천억 정도다. 후문 근처의 가게 임대료는 상무신도심, 충장 구도심과 버금간다. 정작 어디가 불야성이 되어야 하는지.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

■ 전라도 방언 (27)

## “요놈은 얼마고 저놈은 얼마요?”

‘놈(者)’이라는 말이 옛말에서는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으로 쓰였다. ‘훈민정음’ 서문에도 “제 ■들 시러 펴디 몯 ᄎᆞ노미 하니라(不得伸其情者多矣)”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그 의미가 하락하여 “괴씸한 놈. 망할 놈”처럼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비칭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어에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유정물(有情物)을 비하하여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라도방언에서는 유정물은 물론 온갖 무정물에까지 약방 감초처럼 광범하게 쓰이는 점이 특징이다. 마치 ‘이것·그것·저것’의 ‘것’과도 용법이 같다는 말이다.

예컨대, “불효막심한 놈. 소도 큰 놈이 좋다”의 경우는 유정물이지만, 사물을 지칭하는 데에도 무소불통이다. 어떤 물건을 보고도 “요놈은 얼마고 저놈은 얼마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음식을 보고도 “저놈이 맛있겄다”라고 한다. 심지어는 과거의 행동을 후회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 ‘것을’도 전남방언에서는 ‘놈을’로 대용된다. 가령 차를 잘못 내렸을 때 “거그서 내려야 할 놈을 여까장 와불었당께”라 하고, “너 땀시 깎을 놈을 못 깎었어야”라고 한다.

/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인동

인동과에 속하는 반상록 덩굴성 식물로 산야지나 인가 주변에서 자라며, 길이는 3m 내외.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7월이다. 꽃이 필 때에는 흰색이지만 질 무렵에는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은화(金銀花)’ 라고도 부르며 약재로 쓰인다.

/라규채 생태사진가